



'Again 2009' KIA 즐거운 집안 싸움

다승왕

윤석민 VS 로페즈

(1위) (1위)

2009년의 재현을 노리고 있는 호랑이 군단의 '즐거운' 집안 싸움이 끝났다.

KIA가 10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2009 시즌에는 SK와의 순위싸움만큼이나 내부 타이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었다.

외국인 투수 로페즈와 구톱순이 다승왕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거포 김상현과 최희섭은 홈런왕 타이틀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내부 경쟁으로 둘력을 얻은 KIA는 정규시즌을 1위로 마감하며 V10의 위업을 달성했었다.

V11의 신화를 향해 기분 좋은 상승세를 타며 반환점을 둔 2011 시즌에서는 다승왕과 득점왕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는 로페즈와 윤석민의 대결이다. 로페즈는 28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

판해 5이닝동안 7피안타(1홈런) 4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가벼운 팔꿈치 통증으로 일찍 마운드에서 내려와 웰리티스타트를 끊지는 못했지만 8승째를 거두면서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8승 고지를 먼저 밟았던 윤석민이 지난 주말 계속된 비에 등판을 하지 못한 사이 로페즈가 승을 추가하면서 어깨를 나란히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초반 구위가 떨어지면서 고전했던 로페즈는 2009년의 구위를 회복, 과감한 피칭으로 상대 타선을 제압하고 있다. 윤석민도 무시무시한 직구와 노련한 승부로 승을 쟁아가고 있다.

로페즈·윤석민의 부활로 다승왕 탈환을 노리고 있는 KIA는 '좌완 콤비' 트레비스와 양현종을 더해 4명의 10승대 투수단생도 기대하고 있다. 우승을 했던 2009년에도 KIA의 10승 투수는 로페즈(14승), 구톱순(13승), 양현종(12승) 등 세 명에 그쳤다.

타석에서는 롭타자와 3번 타자의 싸움이 흥미롭다.

이용규는 허벅지 근육 부상파열로 시즌 초반 한 달가량 자리를 비워지만 규정타석을 채우자마자 이 대회·이병규와 타율 1위 다툴에 나선 것은 물론 무서운 속도로 득점을 쏟아가면서 이범호와 득점 1위 다툴을 하고 있다.

득점왕

이범호 VS 이용규

(1위) (2위)

대회·이병규와 타율 1위 다툴에 나선 것은 물론 무서운 속도로 득점을 쏟아가면서 이범호와 득점 1위 다툴을 하고 있다.

28일 현재 이범호가 50점, 이용규가 48점으로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이범호가 '한방'으로 타점과 득점을 동시에 수확하며 상대를 공략한다면, 이용규는 빠른 밟과 재치로 흡을 과고들고 있다.

이용규가 텁타자로서 가장 육심내는 부문이 득점. 이범호도 시즌 80타점 100득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서운 흡으로 질주하고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다.

KIA는 이용규와 이범호의 활약 속에 팀 타격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지키며 영광 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출신 김종현 개인·단체전 우승

실업단사격 50m 소총 복사

한국 소총의 에이스 김종현(26·창원시청)이 제31회 전국 실업단사격대회 50m 소총 복사 종목에서 개인·단체전 우승을 훨씬 뒀다.

광주출신의 김종현은 29일 나주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50m 소총 복사 남자 일반부 결선에서 101.2점을 쏴 본선 점수 592점과 함께 693.2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정주영(오크하우징)이 692.9점(591+101.9)으로 2위, 손성철(창원시청)은 690.3점(588+102.3)으로 3위에 들었다.

김종현은 단체전에서도 배성혁(588점), 손성철(588점)과 1천768점을 합작하며 우승해 전날 열린 공기소총 개인전 1위를 합쳐 대회 3관왕이 됐다. 앞서 한화회장배와 경찰청장기 사격에서 우승한 김종현은 실업단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라 상승세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코리아 오픈 탁구 개막

29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막한 '2011 한국마사회컵 코리아 오픈 국제탁구대회' 여자 단식 예선에서 한국 이은희가 일본 소에카의 공격을 받아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푸른 잔디가 모습을 드러낸 페어웨이.

JNJ골프리조트 운곡 … 골퍼들 설렌다

장흥군 장평면 27홀 규모

11월 개장 … 회원 모집 중

장남진골프리조트(주)가 오는 11월 개장을 목표로 장흥군 장평면에 건설 중인 27홀 규모의 JNJ골프리조트가 운곡을 드러내면서 호남 골프 애호가들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4월 말부터 진행된 창립일반회원 분양도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정남진골프리조트(주)는 공사가 중단됐던 45만4545m²(44만 평) 규모의 사업장을 인수해 지난 2월부터 집중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골프장 건설을 서둘러왔다.

현재는 페어웨이와 그린에 파종한 양 잔디가 자라 차광막을 제거하면서 골프장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해 조보자로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사계절 라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원들을 맞이하게 될 클럽 하우스도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인 JNJ골프리조트는 오는 10월 중 시범 리운딩에 들어가 11월께 공식 개장할 예정이다.

JNJ골프리조트 관계자는 "제작은 잔디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예초작업을 하면서 관리하면 호남 제일의 명품 양잔디 코스가 될 것이다"며 "호남 골프 애호가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광주·전남지역에 새로운 골프 문화를 여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NJ골프리조트는 30일까지 창립일반회원 분양을 마치고 7월부터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VIP회원과 VVIP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 061-864-909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샤라포바 월드컵 4강

여자 단식 리지키와 맞대결

슬로바키아)를 2-0(6-1 6-1)으로 완파했다.

2004년 이 대회 우승 이후 2005년과 2006년 연달아 4강까지 올랐던 샤라포바는 5년 만에 이 대회 준결승에 진출, 자비네 리지키(62위·독일)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이번 대회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했지만 2회전에서 올해 프랑스오픈 우승자인 리나(4회·중국)를 꺾는 돌풍을 일으킨 리지키는 8

강에서도 2시간21분의 접전 끝에 상위 랭커인 바톨리를 제압하고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올랐다.

이번 대회 5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있는 샤라포바는 "월드컵 16강을 통과한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4강까지 왔다. 더 좋은 성적을 낼 기회"라며 우승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또 다른 준결승은 빅토리아 아자렌카(5위·벨라루스)와 페트라 크비토바(8위·체코)의 대결로 암축됐다. 크비토바는 초베타나 피론코바(33위·불가리아)를 2-1로 물리치고 2년 연속 월드컵 4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이란?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현지 골프장에서 바로 회원대우

- ① 수도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주중회원 대우.
- ② 영남권/충청권/강원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회원 대우.
- ③ 호남권/제주도 : 주중, 주말 ⇒ 무료 라운딩.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선착순 50명)

회원 가입안내

상품명	가입금액	보증금	가입기간	회원자격	골프서비스	술박서비스	모집인원
프라임 호남VIP	15,200만원	전 액 보증금	5년	기·명·1인 무기명·3인	주중3회, 주말4회/월 (월12회 /년108회)	27평형대 년 60박	9명
플래티늄	6,400만원			기·명·1인 무기명·1인	주중3회, 주말1회/월 (월4회 /년39회)	27평형대 년 15박	32명
프라임	3,800만원			기·명·1인	주중2회, 주말1회/월 (월3회 /년27회)	25평형대 년 15박	

프라임 호남 VIP란?

- ▶ 광주/전남 법인회원을 위해 리즈골프 호남지사 만의 단독상품으로 법인 Business용 Golf Membership 회원권입니다.

기타 회원혜택

제주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제주 골프투어에서 제주 골프텔 연 15박 회원대우)

해외 골프투어 5개국 23개 명문 골프장 전 일정 지상경비 회원대우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매년 회원의 날 친선 골프대회 개최

제작번호

100-023-066943(신한), 349437-04-000608(국민)

예금주 : (주)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상담문의 TEL. 062)371-1800(代)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6 골프프라자 B.D 5층

광주/전남 Golfer를 위한 새로운 제안

리즈골프(Liz Golf)

프라임 호남 VIP 출시

"본인+무기명3인 그린피 전액무료"
100% 보증금 +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선착순 50명)